

창 당 취 지 문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자’던 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말로 변했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치던 남과 북 청년들의 외침도 메아리 되어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지 못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이제, 우리가 걸기했습니다. 우리는, 수령 독재에 저항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자유를 찾은 3만3천여 탈북자들입니다.

남북한이 공존하는 통일의 시대는 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남북한 8천만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통일정당이 없다는, 이 슬픈 현실을 치유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걸기했습니다.

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속에서 예고 없이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해야할 무거운 임무가 우리들의 어깨위에 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같음과 다름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탈북자들의 정당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망각과 잔상으로만 남은 분단의 시대를 끝장내겠습니다.

미래처럼 흩어져 있는 전 세계 탈북민들과 연대하려고합니다. 1천만 실향민들, 그 후손들과 손잡으려고 합니다. 분단엔 무감한 채 컴퓨터와 모바일, SNS에 능숙한 대한민국의 밀레니엄 세대도 담아내는 정당이 되려고 합니다.

‘국민소득 9만 불 시대! 통일이 답이다’라는‘통일대박’의 희망과 ‘통일은 쪽박이다’는 갈등 속에서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실속 있게 섬세하게 준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남과 북 두 사회를 모두 경험한 통일의 선각자답게, 2천5백만 북한주민들의 대변자답게, 우려를 희망으로, 쪽박을 대박으로 바꾸고 말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을 진실로 사랑했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대통령님과 후손들에게 산업화의 기적을 선물해 준 박정희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해 자유통일의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